

## 성령의 열매(7) 양선 -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베소서 2 장 8-10 절

### 1. 보디가드 영화에 대한 반응

얼마 전에 제 아내와 딸이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휘트니 휴스턴이 유명 가수 역할을 맡고, 케빈 코스트너라는 배우가 보디가드 역할을 맡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톱스타인 여자 가수 레이첼(휘트니 휴스턴)에게 협박 편지가 날아옵니다. 레이첼의 매니저는 전직 대통령 경호원이었던 프랭크(케빈 코스트너)를 레이첼의 보디가드로 고용합니다. 둘은 처음에는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다가 프랭크가 몇 차례 위기에서 레이첼을 구해줍니다. 심지어 시상식에서 프랭크는 레이첼을 살리기 위해 몸을 날려 암살 시도를 막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져야 합니다. 공항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고 레이첼은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타러 가고, 프랭크 역시 담담히 떠나려고 합니다. 헌데 이륙을 위해 움직이던 레이첼의 비행기가 멈춰서고, 레이첼이 프랭크에게 달려옵니다. 이때 그 유명한 "앤 다이아 윌 올웨이즈 러브유"라는 흘러 나오고, 두 사람은 포옹을 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아내와 딸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아주 깊이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지나가다가 마지막 장면을 본 중학생 아들이 통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민폐야.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세우면 어떻게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저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만."

## 7. 양선 -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들의 영화 비평에 아내와 딸은 한참을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아들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용 비행기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모 항공사의 **땅콩 회항**과 비슷해 보입니다. 영화의 경우는 **“키스 회항”**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들의 무뚝뚝한 반응을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네가 커서 연애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 2. 양선에 대하여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대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의 차이점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의 입장은 **“무엇이 기능적으로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영화를 해석한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했으면 정해진 항공운항규칙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멈춘 것은 분명 옳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내와 딸은 **“무엇이 관계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이런 점에서 영화를 즐겼습니다. 비록 항공운항규칙은 어겼을 지라도 사랑을 확인했다면, 그것은 충분히 선한 것이라고 느낀 것이겠죠. 그래서 더욱 감동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양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우선 갈라디아서 5 장 22 절의 양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가또쉬네”(agathosyne)**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새번역 성경은 **“선함”**으로 번역하고 있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선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goodness”**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선이란 간단히 요약하면 **“선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헌데 **“양선”** 즉 **“선함”**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이라는 한자를 **“좋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선하다 혹은 좋다라는 표현의

## 7. 양선 - 보시기에 좋았더라

쓰임새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의 경우, “**좋다**”는 의미를 히브리어 “**토브**”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 역시 **눈으로 보기에 즐겁다, 음식 맛이 좋다, 냄새가 향기롭다, 날이 좋다, 말씀이 좋다, 가격이 좋다** 등등 다양한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다**”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일단 전체 쓰임새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논의한 다양한 용례를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능적으로 좋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품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좋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3. 하나님의 선하심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2 장 4 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합니다. **기능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속임수나 비뚤어짐도 없습니다. 본질상 **성품적으로 선하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기능적으로도 좋으신 분이고, 동시에 성품적으로도 좋은 분**입니다.

헌데 이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선함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한 선하심입니다.** 그러니 감히 우리들의 선함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영원히

7. 양선 -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영어권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이 **God is good** 이라고 선창을 하면, 회중이 **All the time** 으로 화답합니다.

목사님이 **All the time**, 그러면 회중이 **God is good** 으로 답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행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성품에 속임수가 전혀 없는 분이신데, 그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입니다.

#### 4. 혼돈과 공허함을 향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어떤 선하신 일을 행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기에, 그것이 완전하고 또한 거짓이 없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창세기 1 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 장 1 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3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빛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도 매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 보시기에 좋았다고, 보시기에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좋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 7. 양선 -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그저 존재 자체가 좋고 선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빛이 있는 것 자체가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늘이 있는 것 자체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름 없는 들풀의 존재, 지나가는 여름을 안타까워하며 구슬피 우는 매미의 존재, 그 자체가 그저 선하고 좋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 좋다. 네가 있는 것 자체가 참 좋구나. 네 존재 자체가 참 선하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적인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노래를 못 불러도, 기억력이 조금 부족해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 좋다. 나는 네가 있는 것 자체가 참 좋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로 참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혹여 장애가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얼굴이 흉하다고,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의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1 장 2 절 말씀에 보면, 땅의 본래 상태를 **혼돈과 공허함으로 묘사**합니다. 혼돈이란 카오스를 말합니다. 즉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허란 텅 비어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혼돈과 공허가 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무질서의 카오스가 질서로 바뀌게 되고, 공허함의 상태가 의미있음의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 7. 양선 -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은 온 세상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가 생기고, 무의미한 세상에서 의미를 갖게 된 것, 그것이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창조를 통해 해가 뜨면 날이 밝습니다. 해가 지면 밤이 찾아옵니다. 바다도 밀물과 썰물의 질서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와 같은 질서가 자연만물에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가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 귀하고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무질서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로 살아가다가 의미를 찾고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 질서와 의미를 너무 귀하다고 좋다고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역사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 5. 우리에게 요청되는 선함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도 선한 일에 동참하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양선의 실천이 되겠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 7. 양선 -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행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10 절 말씀을 통해 단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12 장 21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악이란 선의 결여 혹은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어둠이 그 힘을 발휘하듯이 **악은 선이 없는 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2 장 21 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려면 빛이 와야 하듯이, **악을 물리치려면 선이 꽃을 피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달라고 무명의 성도님이 쌀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합쳐서 약 200 포대 정도 됩니다. **이런 선한 섬김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 나쁜 마음을 먹었을지 모를 누군가가 이 **선한 섬김을 통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선의 결핍으로 인해 악에 빠지는 자가 없도록 서로를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양선의 사명입니다.

## 7. 양선 -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도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다양한 기도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고쳤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선한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저는 모든 사람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귀히 여기고, 그것이 선하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질서해지고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다시금 인생 본연의 질서와 의미를 회복하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그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옆에서 시종을 드는 제 본연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양선**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해봅시다.

양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양선이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그 자체로 선하고 귀히 여기시고, 무질서와 무의미함을 질서와 의미있음으로 바꾸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삶을 그 자체로 귀히 여기고 그의 삶에 질서와 의미가 회복되도록 돕는 성품**

그렇다면 **양선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의 반대말인**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선의 모조품이 무엇일까요?**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대로 한다는 것이 꼭 정의롭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7. 양선 -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물며 선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뉴스에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죠.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말 장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은 선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선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 살인사건을 목격한 증인인 자폐성 장애학생 지우가 자신에게 정보를 캐묻는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참 멍멍한 대사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7. 양선 - 보시기에 좋았더라